

# 정 · 송 정치생명 걸고 '배수진'

17대 총선서 처음 접전, 정문헌 승리 ... 18대 총선은 정 공천탈락으로 승부 못가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정당 공천자가 확정되면서 속초-고성-양양선거구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공천을 받은 정문헌·송훈석 후보가 배수진을 치고 '정치생명'을 건 둘려볼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8년전 17대 총선**= 두 후보는 8년전인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격돌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으로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었던 당시 선거에서 한나라당 정문헌 후보는 23,369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새천년민주당 송훈석 후보는 14,087표를 얻는데 그쳐 3위에 머물러야 했다. 당시 2위는 열린우리당 이동기 후보로 17,147표를 얻었다.

내리 2선을 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으며 환경노동위원장까지 맡을 정도로 상승세를 탔던 송후보는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의 정치 인생에서 처음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

이후 송후보는 약 1년간 해외유학을 다녀오는 등 심기일전해 제18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일각에서 당시 정문헌 의원과 여론조사 지지도 차이가 워낙 커서 아예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하늘은 송후보의 편이었다. 한나라당이 공천 발표를 수차례나 뒤로 미루더니 모두의 예상을 깨고 조동룡 변호사를 전격 공천하자, 불출마 선언을 준비하던 송후보는 "조동룡 후보라면 해볼만하다"며 무소속 출마를 감행해 적극적으로 3선 의원에 당선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정문헌 후보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원로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정재철 고문의 아들로 아버지가 마지막 출마했던 16대 총선 당시 부친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도우며 처음으로 현실 정치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두 사람의 만남은 1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속초-고성-양양에 인제까지 선거구에 속했던 당시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훈석 후보는 자신을 처음

## 두번째 격돌 ... 당락에 따라 운명 엇갈려

정계에 입문시킨 한나라당 정재철 후보의 '적'이 되어 접전을 벌인 결과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신승'을 거두며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정재철 후보는 한보시태로 '낙천·낙선운동' 대상자로 거론되다소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후 4년 뒤 정문헌 후보는 부친이 정계를 은퇴하자 30대 중반의 나이로 17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열린우리당 '바람' 비껴가**= 그러나 '지방이만 꽃아나도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린우리당의 바람이 거센 상황이라서 당선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당선이 유력시되던 장종수 후보의 운동원과 가족 등이 선거법위반으로 돌연 구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불던 '바람'에서 비껴설 수 있었다.

이동기 후보가 장종수 후보 대신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고 선전했으나, 새천년민주당 송훈석 후보와 표가 나뉘진 반면, 정문헌 후보는 정당표를 대부분 흡수해

처음으로 도전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교적 쉽게 당선됐다.

앞길이 탄탄할 것 같았던 정후보는 그러나 4년 뒤인 18대 총선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비운을 맞았다.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나, 정후보는 눈물을 삼키고 후일을 기다렸가, 4년이 지난 이번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재기를 노리게 됐다.

이제 이들 두명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생명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송후보가 당선될 경우 설악권 최초의 4선 의원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다. 반면 낙선할 경우 현재 우리 나이로 63세(만 61세)로 나이가 다소 많은데도 동력이 크게 상실돼 정계에서 자연스럽게 은퇴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문헌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4년전 공천탈락의 아픔을 딛고 재기에 성공하게 되며 재선의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3선을 내다볼 수 있는 고지에 서게 된다. 반면 정후보도 낙선할 경우 8년의 공백이 생겨 정치권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광호 기자

## 손문영 후보 공천반발 무소속 출마

"구시대 정치인 공천 납득 못해" ... '이공계 우대' 약속 어겼다

새누리당이 지난 5일 2차 공천발표를 통해 정문헌 후보를 공천자로 확정된 가운데, 같은 당 예비후보자로 뛰던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가 하루 뒤인 6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손문영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지지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잘못된 공천으로 영북지역은 더 이상 정당정치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됐다"며 "진정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역사적 선택의 심판이 광풍으로 불도록 유권자만 바라보고 이 한 몸 던지겠다"고 했다.

손후보는 또 "새누리당이 이공계 출신에

게 공천 가산점을 최대 20%까지 주기로 한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공천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공천 심사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손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건적 형태의 부자세습을 묵인하고 공천해 지역민을 짓밟은 것은 '공천만행'이다. '밀실공천'으로 국민정당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상실하고 말았다" 등 강도 높은 발언도 쏟아냈다.

손후보는 특히 "새누리당 공천을 함께 신청했던 안종복 후보와 구두상으로 속초 출신이 나오자고 합의했다. 안후보가 현재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손문영 후보가 지난 6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심중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설악권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할 것"이라며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광호 기자



0...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손문영 후보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안종복 후보도 저와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 후 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안종복 후보(사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종복 후보는 지난 9일 전화통화에서

## 안종복 후보 "손문영 지지 사실과 다르다"

"아직 재심을 신청한 것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손문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 분 생각이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안후보는 "현재로서는 당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저의 거취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밝힐 것이며, 다른 분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 이동기 후보 "성원에 감사"

0...민주통합당 경선에 참가한 이동기 후보(사진)는 지난 6~7일 모바일 투표와

8일 현장투표 결과 송훈석 후보에게 뒤져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후보는 "경선 과정에 다소 서운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르는 것이 당원으로서의 책임"이라며 "송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선관위,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

0...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군부대·소방서·한전·전기안전공사 등 지역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들을 초청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두성 관리계장은 투·개표 시원 등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총선 일정과 부재자 투표 등에 대해 설명했다.

